

“신 살에 만든 나만의 다큐로 자신감 생겼어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주 강좌
자전적 다큐 각본·연출 교육
퇴직전후 장년층 18명 수료

“이른 나이에 결혼과 육아를 시작, 가정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보니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기쁨이 컸고, 앞으로도 더 심화적으로 배워서 영상제작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중장년세대 커리어개발’ 교육과정에 참여해 다큐멘터리 ‘어머니’를 연출한 김연미(여·50) 수강생. 진흥원은 최근 ‘이모작 다큐 만들기, 즐거운 나의 삶’을 참가한 수강생 총 18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8주간 진행된 ‘이모작 다큐 만들기’ 교육과정은 손승민 강사(독립영화 감독)의 지도 하에 퇴직전후 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다.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 곳곳의 다양한 소재를 발굴, 향후 영상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됐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6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 ‘중장년세대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수료식 겸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졌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수료식 겸 시사회에는, 수강생들이 순천 드라마세트장에서 공동 제작한 단편영화와 ‘이모작 십삼일의 하루’(성봉제 감독), ‘어머니’(김연미 감독), ‘최영감 푸른 나무꾼 되다’(최준영 감독), ‘달려요 엄마’(김명희 감독) 등 퇴직 공무원, 주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중장년세대 수강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시연하고 감독과

의 대화를 나눴다.

이번 이모작 다큐 만들기 과정은 향후 학습동아리 활동과 심화 교육과정 등을 통해 더욱 나은 작품을 만들고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장년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수료 후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중장년세대 직접 강좌를 기획해 진흥원 내에서 운영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모작 열린교실’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생활별 영어회화, 바른 몸 바른 자세 등 취미 교양 위주의 강좌로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지원팀 담당자(062-600-5242)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실제상황이란 자세로”

3일까지 재난대응훈련

광주시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30일부터 5일간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자치구, 경찰청, 503여단, 1179부대 등 21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남구 통합거점경로당 화재발생에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도 한다.

화재발생에 따른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부소방서~화운로~월드컵경기장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훈련을 하고 도로상에서 폭설대비 통제, 구호, 홍보, 제설 등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결들인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가스폭발에 대응하는 통합훈련도 한다. 이번 훈련에는 드론, 제독장비 등 군·경의 현대식 장비를 동원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인 훈련을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내년 광주시민총회 같게요”

광주시, 지방자치박람회 참여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광주시의 직접민주주의 모델, 광주시민총회와 참여와 소통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인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참여한

‘광주시민총회’를 직접민주주의의 모델로 제시하고, 참여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구현해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 정책홍보관을 방문해 올해 열린 광주시민총회의 제안정책 찬반투표를 체험하고, 내년 에 열린 광주시민총회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참석’ 표시로 화

답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박람회 기념식 후 광주정책홍보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광주향토전시관, 광주 먹거리장터 등을 찾아 격려하고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로 16회를 맞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도 전국 최다인 총 11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최종 심사에서 금호1동과 상무2동이 최우수상, 임동과 삼각동, 매곡동, 농성1동, 화정3동, 우산동 등 6개동이 우수상, 건국동과 화정4동, 어룡동 등 3개동이 장려상을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청년위, 대구시 청년주간 축제 참여

광주청년위원회 위원들과 청년센터 청년들이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대구지역 청년들과 교류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 청년위원회가 지난 8월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청년축제에 참여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광주와 대구 청년위원회는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 시책의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양 도시를 오가며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광주청년들은 대구 방문 첫날, 대구시 YMCA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김한필 대구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시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광주와 대구 청년위원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분과 모임을 가졌다.

김형호 광주청년위원장등은 이 자리에서 “광주 세계청년축제에서 대구 청년위원

들이 개막식 청년선언은 물론 다음날 진행된 국립5·18민주묘지 합동참배까지 함께한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며 “청년의 이름으로 광주-대구가 정책 개발과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양 도시 청년위원들은 대구시 청년주간 축제에 함께 참여해 우의를 다졌다. 29일에는 대구 국제보상기념관,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등 도심명소를 둘러본 후 광주로 돌아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속가능교육 한마당’서 학생들 정보 공유

광주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육대,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 주최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이 지난 28일 광주교육대 제1운동장에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지역사회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으로,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원칙을 적용해 실천하는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번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ESD시민학교인 광주교육대광주부설초등학교 최영순 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교육대,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 일

원에서 교육정보마켓, 전시·체험행사, 교육강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교육정보마켓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연구회를 비롯, 시범학교,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사례와 적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아파트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할 분쟁해결소통방 우수사례, 우리종자, 도시농업 등도 소개됐다. 전시체험행사에서는 시민이 직접 꾸며낸 사진전,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블록체인-방탈출게임, 천연기름기, 태양광기, 환경지킴이봇지, 친환경가루세제, EM세제 만들기, 물, 자원순환, 경제교육도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펼쳐졌다.

교육강좌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채식버거만들기 강좌가 이어졌으며,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제품, 로컬푸드도 판매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식품명인 장담그기 비법 전수…선작순 20명 접수

광주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는 오는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담그기 특강’ 과정을 운영한다. 대상은 선작순 20명이다.

이번 강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로 지정받은 백정자씨가 맡는다.

첫째 날에는 장에 대한 이론수업(1시간)과 만능된장·간장 등을 만드는 실습(2시간)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태

양초고추장을 만들고, 매춧가루를 보릿가루·고춧가루와 함께 찹쌀죽에 섞은 뒤 소금에 절인 야채를 박아 넣어 익힌 죽장을 체험한다. 마지막 날에는 매주장 담그는 법과 매주를 가루로 만들어 담그는 막장도 제작한다. 수강 희망자는 11월26일까지 전화(672-8447, 8446) 또는 직접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재료비를 포함해 30만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기사 휴식공간 개선 완료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내버스 차고지·회고지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시내버스 환경개선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민선 6기 들어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첫날 새벽 장등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 시내버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월남, 장등, 매월, 첨단, 일곡, 세하, 증심사, 진곡 등 주요 차고지와 회차지 8곳의 휴게실

및 식당, 화장실 등이 대폭 개선됐다. 또 편의시설 확보, 노후차고지 노면 재포장, 석면 교체, 자동세차시설 2대 신설 등도 이뤄졌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올해 교통시설개선기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규모 차고지와 회차지 등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냉난방기 교체, 노후 가로등 교체, 방지턱 설치 작업 등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진=광주시 제공)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